

올 KBO리그 최우수선수는 누구?

26일 KBO 시상식... 2024시즌 MVP·신인상 후보 공개
김도영·구자욱·홍창기·곽빈 등 18명이 MVP 후보

2024 KBO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최우수선수)가 가려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4 신한 솔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퓨처스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시상으로 시작해 KBO 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KBO 심판상, 그리고 각 포지션에서 우수한 수비를 펼친 9명의 선수를 뽑는 KBO 수비상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시상식 마지막에 펼쳐질

2024 KBO 신인상과 영예의 MVP 주인공 발표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와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투표를 진행, MVP와 신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MVP 후보로는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들과 한국야구기자회에서 격려한 후보로 선정한 선수들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 후보로는 KBO 표창 규정 제7

조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 총 6명이 선정됐다. 2회째를 맞는 KBO 수비상에는 투수 98명, 포수 14명, 내·외야수 54명이 후보로 올랐다. KBO는 수비 지표(25%)와 구단별 투표인단(감독 1명·코치 9명·단장 1명)의 선정 투표(75%)를 거쳐 각 포지션별 1명씩, 총 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비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KBO 리그 부문별 1위 선수들과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신인상 수상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원이, 대망의 KBO

MVP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KIA EV9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2024 KBO리그 MVP 후보= 제임스 네일, 정해영, 김도영(이상 KIA 타이거즈), 원태인, 구자욱(이상 삼성 라이온즈), 오스틴, 홍창기(이상 LG 트윈스), 곽빈, 조수행(이상 두산 베어스), 박영현, 멜 로하스 주니어(KT 위즈), 노경은, 길레르모 에레디아, 최정(이상 SSG 랜더스), 빅터 레이예스(롯데 자이언츠), 카일 하트, 맷 데이비스(NC 다이노스), 아리엘 후라도(키움 히어로즈).

▲2024 KBO리그 신인상 후보= 광도규(KIA), 김택연, 최지강(이상 두산), 조병현, 정준재(이상 SSG), 황영목(한화 이글스) /뉴시스

올해 마지막 풀코스, 남원서

춘향 전국마라톤대회, 24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서 5000여명 참여... 풀코스·하프코스 등으로 진행

남원시는 올해 마지막 풀 코스 대회인 '2024 남원 춘향 전국마라톤대회'가 24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 남원시육상연맹 및 전국마라톤협회 등이 주최·주관하며 약 5,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경기로 진행되며, 경기 중간에는 남원시립농악단이 농악 한마당을 선보여 참가선수들의 힘을 북돋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케냐 선

수 4명이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해 품격있는 마라톤 대회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메인 포토존 역시 1개에서 3개로 늘려 참가 마라토너들의 재미를 더하고 드론 촬영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대회의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남원소방서, 남원시보건소 의료인력, 자원봉사자(300여명) 등을 배치하고, 남원경찰서, 모범택시, 자율방범대 등을 교통 통제에 참여시켜 참가 선수들의 안전에 노력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 20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와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박노준 총장과 자리프바예브 자수르(Zarifbaev Jasur)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 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태권도 인재 양성 '맞손' | 우석대-우즈벡 국립체대,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 20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와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자리프바예브 자수르(Zarifbaev Jasur)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 부총장 등을 비롯해 양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태권도학과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와 △단기 교육 프로그램 및 태권도 인턴십 진행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학술자료 및 태권도 정보 교류 △태권도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맞는 태권도 인재를 양

성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55년 개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는 수도 타슈켄트에 자리 잡고 있으며, 27개 학부(과)에서 약 1만 명의 학생이 수학과 있다. 2008년 태권도학과가 개설돼 현재 국기원에서 파견된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승마대회 장수서

말산업특구 장수군에서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다.

대한승마협회(대표 박서영) 주최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선수 105명, 마필 116두가 출전 예정이다. 22~23일 이틀간 마장마술 6개 경기, 25~26일 이틀간 장애물 9개 경기로 구성돼 있으며 대회 종목 중 유소년 경기(마장마술 유소년 포니 D Class, 장애물 유소년 포니 90 Class, 80 Class)를 포함하고 있어 승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본인의 기량을 뽐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승마대회에 참여하는 승마 선수들과 마필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수국제승마장 시설개선과 운영지원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승마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수군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장수국제승마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마장을 보유하고 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올해는 총 17회의 전국단위 승마대회를 개최해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21일 이기홍 체육회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노조 제공)

대한체육회 노조, 이기홍 회장 규탄 시위

문체부로부터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받아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21일 회장 직무 정지 정지를 당한 이기홍 체육회장을 규탄하는 긴급 시위를 벌였다. 체육회 노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올림픽회관에 방문해 체육회장 직무사로 출근했다.

체육회 노조는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올림픽회관에 방문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IOC위원이 대한체육회에 방문해 업무를 할 일도 없었던데도 회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IOC 위원 직위를 광계로 내세우는 언어도단에 빠진 행태에 가까웠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 날 효력 정지 거처본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다음 달 개최된다.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이 회장이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내자 체육회 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올림픽회관 1층 로비에서 "체육 수장 자격 없는 이기홍은 퇴진하라", "예산 탕진 체육 비리 이기홍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20분 동안 강력히 규탄했다.

체육회 노조는 "이기홍 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처사를 지켜보며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긴급하게 조합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이기홍 회장의 출근길을 저지,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KIA, 30일 'V12 타이거즈'

페스타·카 퍼레이드 개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0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통합 우승을 일궈낸 KIA가 팬 5,000명을 무료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이거즈 페스타는 팬 사인회, 우승 트로피 포토존 등 사전 행사로 문을 열고, 선수단과 우승 트로피 입장, 선수단 감사 인사,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다시 외치는 한국시리즈 응원전, 호랑이가족 한마당,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밖에 선수들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와 다양한 숏폼 영상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길 계획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본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소리꽃피다

이대혁 | 베이스

이윤정 | 피아노

강지수 | 바이올린

김성민 | 첼로

이상욱 | 기타

정효준 | 디제이잉

심재린 | 해금

이정연 | 소리

2024. 11. 22(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 전석 10,000원

예약 | *소리꽃피다* 검색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 063. 223. 5323

주최·주관 | 문화재단

후원 | JT 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전주매일신문